

DIOCESE OF SAITAMA

TOKIWA 6-4-12, Urawa-ku,
SAITAMA city
〒330-0061, JAPAN
TEL:048-831-3150
FAX:048-824-3532



カトリックさいたま教区

さいたま市浦和区
常盤 6-4-12
〒330-0061
TEL:048-831-3150
FAX:048-824-3532

사이타마 교구의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께

**주님의 성탄, 그리고 새해 축하 인사드립니다.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루카 2:14b)**

오늘, 설날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또한 ‘세계 평화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해의 처음, 특히 성모 마리아님의 전구에 의해, 세계의 지도자들이 교황 프란치스코의 평화에의 요청에 답하여, 더욱 진지하게 지혜와 힘을 모아,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작년 11 월, 교황님의 방문을 받고, 기쁨 가득히,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 수도원, 학교, 각 시설, 그리고 가정에도, 교황님의 포스터나 달력이 걸리고,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이나 기념품이 소중히 간직되어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교황님이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신 메시지를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 새해를 보냄에 있어 그것을 현실화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연을 소중히 합시다.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올해의 첫 날에, 하나를 저에게 고르라 하시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이라 말씀하신 것 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활하는 장소에서, 여러가지의 다름을 넘어서, 설령 작은 것 일지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서로 생각하며 그것을 실행한다면 매우 행복한 일 일것 입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을 위한 훌륭한 길의 하나는, ‘살아있는 모든 것의 집이 되는 지구’를 소중히 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교황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은총을 받은 일본에서도, 광대해져만 가는 경제활동 때문에, 환경파괴는 위기스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다, 해변의 모래사장의 모습 하나 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지구는 바다에 의해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의 많은 것은 바다를 건너는 배에 의해 운반되어 지고 있습니다. 해류의 흐름에 의해 바다의 생명이 풍성함이 주어지고, 거기에서 태어나는 많은 종류의 생명들이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33 년간 살았던 아르헨티나와 비교하면,

자연을 소중히 하는 활동은 일본이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의식은 완전히 부족하고, 일치된 협력, 노력이 더욱 필요 합니다.

자연을 소중히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태오 22:36-40) 라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해야 할 계명과 깊이 관련 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벽을 넘어, 모든 이들에 있어서의, 공통된 긴급한 과제 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각 성당에 있어, 각 가정에 있어, 그리고, 지역의 모든이와의 교류의 장에 있어서, ‘자연을 소중히’ 하는 활동에 대해 무언가 연구하여, 실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해가 참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하느님의 풍성한 축복을 기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성모 마리아님으로의 신뢰가 한층더 깊어지도록 기도 합시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바티칸에서 교황님 알현. 두 개의 켄다마(けん玉)를 교황님께 선물드립니다.

2020 년 새해에

마리오 야마노우치 미치아키 주교